

농업 동향

해외농업개발 확보 곡물 국내 반입 성과 기사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기업인 (주)서울 사료가 3월 22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직접 생산한 사료용 옥수수 3,100톤을 평택항으로 반입하며, 이번 반입물량은 올해 초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로 옥수수 할당관세 수입추천기관에 포함된 (사)해외농업개발협회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옥수수·밀·콩 등 수입의존도가 큰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직접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2013년 예산 : 355억원(용자 330, 보조25))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는 등 지원체제를 정비해 온 바 있다.

이번 반입 사례는 그동안 정부와 해외농업개발기업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며, 사업 4년차인 2012년부터는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곡물의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해외농업개발 반입물량 : (2010) 424톤 ⇒ (2011) 796톤 ⇒ (2012) 10,539톤).

서울사료는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8년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하여 직접 영농을 통해 옥수수·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용자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수행하여 국내 반입을 위한 가격 경쟁력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외농업개발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밀·콩 등의 곡물을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확보·조달하는 사업으로 국제곡물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는 진출지역 다변화, 국내 반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등 해외농업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회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기업·단체의 농어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기업·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이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우수사례 : ①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e)의 농촌개발 활동, ② 영국계 다국적 기업 톰슨 로이더(Thomson Reuters)의 농촌 사회공헌).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대출금리 및 신용등급평가 우대), 정책사업(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물품구매·용역계약(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인증기업·단체를 위한 지원 분야 발굴을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차 산업화로 농촌 창조경제 기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28개 향토자원을 예비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12월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35개 시·군에서 39개 사업을 응모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향토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8개 사업이 예비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지구는 올 4월부터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각 시·도 지원 하에 농어촌지역 산업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컨설팅트 및 시·도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10월 중 2014년도 사업시행 대상지구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특산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특색 있는 유·무형의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분야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정책사업 중의 하나이다.

2014년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2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해 4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 규모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사업 시작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연도별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사업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월 중에 민·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 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을 협의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단계별로 정부와 생산자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 6월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총 1.5조원)이라고 밝혔다. 넷째,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약 95%)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까지 조사료증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협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이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㉞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